

“보고서 쓰기가 제일 쉬웠어요!”  
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

# 클가 쓰이 기드



##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?

“말을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”

“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자꾸 다른 뜻으로 전달돼요”

“말실수한 게 밤에 생각해서 이불을 차게 돼요”

“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”



내면의 생각들을 그대로 꺼내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의사소통.

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하겠죠?

다양한 글쓰기로 생각을 구조화 하는 연습을 하면

남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, 효과적으로 내 의견을 전할 수 있어요.

의사소통센터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곳입니다.

##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의사소통센터

[제 1회 통하는 의사소통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글 부문 수상작]  
정다혜(문예창작학과 '17)

글쓰기는 어렵다.

많은 학생들이 내가 가진 생각조차

나의 글로써 표현하지 못 할 때의

답답함과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이다.

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글쓰기가

고역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.

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?

[사고와 표현] 담당 교수님들이 제시하고 있는

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언을 모아보았다.



### 1. 많이 읽고 많이 써라

- ‘읽는다는 것’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글쓰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
- ‘쓰는 것’은 타인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글쓰기 방법을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
-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물에 들어가 봐야 하듯이, 글쓰기는 글을 써봐야 익힐 수 있다.



### 2.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자

- 자신이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혹은 독자들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해 야 한다.
- 자신의 생각대로만 쓰게 되면 어떤 글은 필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문이 되는 경우도 있다.
- 글은 항상 독자가 읽어야만 비로소 소통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.



### 3. 글쓰기의 과정과 단계를 따르자

- 모든 일에도 밟아야 할 과정과 절차가 있듯이 글쓰기에도 필요한 과정과 절차가 있다.
- 글쓰기 과정 : 계획하기(구상단계) - 표현하기(집필단계) - 고쳐쓰기(퇴고단계)
- 글쓰기 5단계 원칙

(1) 주제 선정 (2) 자료 수집 및 정리 (3) 개요쓰기 (4) 집필하기 (5) 퇴고하기



## 4. 개요는 구체적으로, 단계적으로 그리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라

- 개요는 수집된 자료를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흐름과 짜임에 맞게 배치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글의 틀을 짜는 것을 말한다.
- 개요는 글의 구성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. 구성이 잘못되면 개별적인 문장은 이해될 수 있지만, 전체적인 의미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.

글의 구성 원칙	수정이 필요해요!	좋은 글이에요!
구체성	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자.	예술 대학의 통폐합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.
단계성	결론→본론	서론→본론→결론
통일성	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관심이 있는 여러 내용을 쓴 글	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글만 제시

### • 개요 작성 순서

- ①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문 정하기
  - ② 글의 논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항목 적기
  - ③ 글의 형식을 서론-본론-결론 형식으로 짜기
  - ④ 각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적기
  - ⑤ 각 부분의 분량을 고려하면서 배치하기
- 개요를 작성할 때, 브레인 스토밍(Brainstroming)이나 마인드 맵핑(Mind Mapping)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.



## 5. 문장은 간결하게, 문단은 논증적으로 구성하라

### ■ 문장쓰기

- 문장은 우선 간결하게 써야 한다. 경력이 많은 작가라면 만연체를 통해서도 주제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하다.
- 2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간결하게 표현해야 글이 힘이 있고 비문을 쓰지 않을 수 있다.
- 가급적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되어야 한다.  
“학생회의가 내일 5시에 있다.”→ “나는 내일 5시에 학생회의에 참가할 것이다”

- 서술어도 움직이는 행위가 와야 한다.

“피의자의 법정 증언이 있다.” → “피의자가 법정에서 증언한다.”

## ■ 문단쓰기

- 문단은 하나의 생각단위를 나타낸다.
- 상당수 학생들이 문단을 분량의 문제로 보아 적당한 분량이 되면 문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문단을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.
-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논증(하나의 주장 + 하나 이상의 논거) 제시
- 논리적인 문단을 쓰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.
  - ① 논거는 받아들일만한가?
  - ② 주장과 논거는 관련성이 있는가?
  - ③ 논거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해주는가?



## 6. 퇴고하기는 부가의 원칙과 삭제의 원칙으로 진행하라

- 퇴고하기는 논리성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한다.
  - 논리성 : 논증이나 예시 반론에 대한 비판 등이 잘 드러나 있는가?
  - 표현력 : 맞춤법, 띄어쓰기는 맞는가, 비문은 없는가?
- 이러한 퇴고과정을 거쳐야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.
- 퇴고하기 원칙
  - 빠뜨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첨가하거나 보충하는 “부가의 원칙”
  -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는 “삭제의 원칙”
  - 글의 논리적인 순서를 재구성하는 “재구성의 원칙”
- 특히 삭제의 원칙이 중요하다. 글쓰기가 밤을 새우면서 힘겹게 쓴 문장이나 문단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도 버리기가 쉽지 않다. 그러나 버려야 얻을 수 있다.
- 스티븐 킹도 25% 정도는 퇴고과정에서 삭제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.

## 졸업논문, 학회 발표 논문 등 학술적 글쓰기를 잘 하고 싶다면? ▾



### 1. 신문 사설과 칼럼 기사 읽기 생활화

- 신문의 논설문(대표적으로 사설)과 칼럼기사의 내용을 주장, 근거, 사례, 참고자료로 구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라.
-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기사 등이야말로 글쓴이의 논증이 글의 골간이 되는 글이다.
- 따라서 논설문이나 칼럼기사들을 많이 접하다보면,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.
- 또한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학술적 글쓰기의 모듈이 되는 글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..



### 2.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인 ‘논증’ 일상화

- 학술적 글쓰기는 대학 글쓰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.
- 일상의 생활 속에서(친구와의 대화에서, 부모와의 대화에서, 더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공론의 장에서)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할 때, 늘 자신의 주장의 근거와 그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-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.

#### 글쓰기 윤리강령

##### • 첫째 : “부팅하지 말고 사고하자”

남의 아이디어나 글을 참고하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“나”의 생각과 의견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.

이로써 ‘나’는 ‘사고의 주체’가 된다.

## 자기소개서의 기본인 에세이를 잘 쓰고 싶다면?



### 1.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시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라

- 에세이 쓰기는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
- 1인칭적인 시각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소감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.



### 2.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

- 자신이 겪은 고유한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룬다.
  -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내 글을 읽는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.
- 예) 다양한 일경험 → 프랜차이즈 식당 서빙경험, 물류센터 택배 분류 경험



### 3. 자신의 이야기 속에 늘 주변이나 타인들과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.

- 어떤 이야기이든지 세상 속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.
- 다른 사물들이나 타인들과의 관계를 더불어 이야기할 때 글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다.

#### 글쓰기 윤리강령

##### • 둘째 : “예배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자”

자기 생각을 형성해놓은 상태에서 기존의 책이나 논문, 인터넷 자료를 참조해야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.

## 서평, 영화비평문 등 비평문을 잘 쓰고 싶다면?



### 1. 늘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고 바라보자.

- 책, 영화, 예술작품 등을 대할 때는 나만의 문제의식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글의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준다.



### 2. 작품에 나타난 원저자의 의도와 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자.

- 어떤 작품이든지 원저자의 가치와 세계관이 표현된다.
- 먼저 저자의 의도나 작품의 배경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



### 3. 결론에서는 늘 나만의 메시지가 제시되어야 한다.

- 비평문을 쓰고 마지막으로 매듭지을 때는 독자들에게 전달할 명확한 메시지를 서술한다.
- 결론에서 비평문이 갖고 있는 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글쓰기 윤리강령

- 셋째 : “립싱크하지 말고, 나의 목소리를 내자”  
내 목소리로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남의 생각에 맞추어 립싱크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.
- 넷째 : “표절은 범죄이다”  
각주와 참고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! 표절은 남의 지식을 훔치는 ‘범죄’이다.



## 1. 여론과 인습에 기대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라

- 오늘날과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려내어 능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자세가 요구된다.
- 이런 능력이야말로 말로 정치, 경제, 사회 문제를 공론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척도가 된다.



## 2. 네티즌의 기본 정신과 행동 강령을 익히자

### 기본 정신

-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.
-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.
-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.
-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.

### 행동 강령

-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-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.
-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-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,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-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,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.
-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-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-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.

[출처 : 정보통신윤리위원회]

## 나의 과제나 논문, 기타 내가 쓴 글을 첨삭받고 싶다면?



의사소통상담을 신청해 볼까요?

바른시스템 (학생종합역량시스템) 의사소통상담  
(KGU+포인트 부여)

- ※ 상담신청 시 수원/ 서울 캠퍼스인지 꼭 확인하세요!
- ※ 첨삭을 희망하는 문서를 같이 첨부해주세요!

The screenshot shows the KGU counseling website interface. The left sidebar menu has two items highlighted with red boxes: '상담 활동 클릭1' and '의사소통상담 클릭2'.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'상담안내' and includes a table with three buttons: '의사소통상담 소개', '상담 신청하기(수원)', and '상담 신청하기(서울)'. Below this is a section for '의사소통상담 소개' with a table of details.

상담안내		
의사소통상담 소개	상담 신청하기(수원)	상담 신청하기(서울)
<b>의사소통상담 소개</b>		
<b>의사소통상담이란?</b>		
1. 운영 목적	• 경기대학교 재학생의 글쓰기와 말하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	
2. 상담 대상	• 경기대학교 학부 재학생 (외국인 포함)	
3. 상담 방식	• 상담 신청하기 (희망 상담 시간과 튜터 선택, 점부파일 첨부) • 상담하기 (약속된 상담 시간에 인쇄본을 가지고 와서 전문 튜터와 일대일 대면 상담)	
4. 상담 내용	• 첨삭을 희망하는 다양한 글쓰기 주제 가능 • 첨삭내용은 작성요령 및 수정에 대한 조언이며 완성본 도출이 아님	

### 1. 의사소통상담이란 무엇일까요?

글쓰기 관련 전문 튜터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직접 내가 쓴 글을 보여주고  
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(주제의 선정이나 논리성 여부 등)  
글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써내려가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

### 2. 의사소통상담이 가능한 주제는 어떤 것들인가요?

과제, 공모전글쓰기, 자기소개서 초안 등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를 위한 상담

### 3. 의사소통상담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?

BARUN 시스템(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)에서 신청 <https://barun.kyonggi.ac.kr>



### 4. 의사소통상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
좋은 글과 KGU+ 포인트(2~10)

### 5. 의사소통은 어디서 진행할까요?

서울 캠퍼스 : 충정관 2203호

수원 캠퍼스 : 이스퀘어 3층 스터디룸

- 일부 교수님의 경우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글쓰기 가이드

인쇄일 2020년 02월 10일 인쇄  
발행일 2020년 02월 15일 발행  
발행처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의사소통센터  
발행인 사고와 표현 교원(김화경, 송명진, 엄현섭,  
윤대선, 최준호), 유재연 연구원  
주 소 (16227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 
154-42 예지관 B1 4004호  
연락처 031)249-9498  
홈페이지 <https://commu.kgu.ac.kr>  
이메일 [commu@kgu.ac.kr](mailto:commu@kgu.ac.kr)